

2018. 8. 17. [금] 언론보도

MBN

2018-08-16 06:54

문 대통령 '남북접경에 통일경제특구...동아시아철도공동체 제안'

[구민회 기자]

동영상 뉴스

【 앵커멘트 】

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접경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구상과 미국과 한반도 주변 6개 나라가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제안했습니다.

김태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광복절 73주년 기념식.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정치적 통일은 멀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입니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예로 들며,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 접경지에 대규모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문재인 / 대통령

-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입니다.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고,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30년 동안 최소 170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동북아 6개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도 제안했습니다.

이 철도공동체가 유럽연합처럼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판문점선언에 담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올해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태일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뚜르드 DMZ 국제자전거대회' 31일 개막

[이상범 기자]

동영상 뉴스

평화와 짧음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가 이번 달 31일부터 9월4일까지 열립니다.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공동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평화를 넘어 미래를 달린다"는 주제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국제사이클연맹 공인대회인 "제3회 국제청소년도로사이클대회"와 "2018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 동호인 대회인 "연천 자전거투어" 등 3개 대회가 함께 펼쳐집니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이번 대회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인방송

2018-08-16 00:00

경기도, "문 정부의 한반도 평화 번영 노력 환영…통일경제 특구, 철도 사업 등 경기도 역할 다할 것"

[홍성민 기자]



경기도청 전경.

[경인방송=홍성민 기자]

경기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 "경기도의 역할을 하겠다"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도는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의지와 '평화는 경제'라는 인식에 적극 공감한다"며 "이같은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와 '통일경제특구' 등 한반도 평화 정착과 경제협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한반도 공동번영의 시작인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의 올해 안 착공에 대해 경기도의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hsm@ifm.kr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 6건 국회 계류

부처 간 협의·지역 형평성 문제 등 넘어야

문 대통령 언급 계기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이 주목받고 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접경지에 남북 공동경제구역을 설치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문대통령은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고 집권 후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했다.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여야의 관련 법안 제·개

정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통일경제특구 특례 및 지원 방안,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총 6건이 계류 중이다. 앞서 19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돼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쳤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로 넘어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윤후덕·김현미 의원(현 국토교통부장관)과 자유한국당 김성원·이양수·홍철호 의원 등 북한 인접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각

각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통일경제특구의 조세 감면 등 개발 특례, 입주기업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함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 남북 경제협력특별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국회 논의 과정을 보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20대 국회 들어 통일부·국토부장관이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한다는데 까지만 합의했을 뿐 법안의 핵심 내용은 부처 간 협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통일부는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8개 이상의 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국회 외교통일위 법안심사소위는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 심사를 연기하며 “준비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다”고 밝혔다.

지역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박정·이양수 의원의 관련 법안은 각각 경기 파주와 강원 고성을 통일경제특구 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법안을 보면 자기 지역을 우선해서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지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다.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아시아투데이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028면 수도권/전국

서해~동해 DMZ 가로지르는 ‘평화의 두바퀴’

31일 뚜르드 디엠지 국제자전거대회 5개 코스 479km 구간 5일간 대장정 15개국 17개팀 청소년 기량 겨루 ‘한반도 평화정착 마중물 역할 기대’

평화와 젊음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뚜르드 디엠지(Tour de DMZ) 2018 국제자전거대회’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단시간 비무장지대(DMZ)와 접경지역 일원에서 평화의 염원을 담은 ‘은둔의 향연’을 펼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평화를 넘어 미래를 달린다’라는 주제로 분단의 역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를 따라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제사이클연맹(UCI) 공인대회인 ‘뚜르 드 디엠지 국제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와 ‘뚜르 드 디엠지 2018 마스터즈 도로사이클대회’, 동호인 대회인 ‘연천 자전거투어’ 등 3개 대회가 함께 진행돼 프로와 아마를 망라한 행사로 치러진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뚜르 드 디엠지 국제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는 아시아 유일의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 대회이자 국제사이클연맹이 공인하는 청소년 국가대항전으로, 각 국에서 25개 팀 150여명의 청소년 선수가 참가한다.

올해 대회는 인천 강화군이 새롭게 정규 경기코스에 포함돼 서해부터 동해까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역을 횡단하는 대회로 확대 발전했다. 코스는 지난해 보다 1개 구간이 늘어난 5개 코스, 총 479km에서 경기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우수한 경기력을 자랑하는 15개 국가 17개 팀의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가 참가할 예정으로, 예년에 비해 더욱 수준 높은 경기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가평고교 사이클 팀을 비롯한 전국 8개 고교 사이클팀이 참가해 외국선수들과 기량을 겨루게 된다.

지난해 북한 핵실험 등 불안한 한반도 정세를 이유로 대회 직전에 불참을 통보했던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멕시코 등이 올해 대회에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혀 해외 참가팀이 확대되는 등 대회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대회 기간 DMZ가 평화의 공간으로서 세계인에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대한자전거연맹 관계자는 “지난해와 달리 대회 참가 의향을 밝힌 국가가 많아 국내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부득이 일부국가의 참가를

제한했다”며 “남북 평화분위기로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을 실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뚜르 드 디엠지 2018 마스터즈 도로사이클대회’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강화군~화천 코스에서 23개 팀 21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또 부대행사로 개최되는 ‘연천자전거 투어’는 다음 달 2일 연천군 일원 62km 구간에서 진행되며, 동호인 약 1000여명이 참가한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 남북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뚜르 드 디엠지 국제자전거대회가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한반도 평화정착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박은영 기자

전쟁의 냄새 지우는 ‘예술의 향기’

미군 떠난 파주 ‘캠프 그리브스’
DMZ 평화정거장 사업 시작 후
문화예술 공간으로 멋진 변신
탄약고엔 무기 대신 설치작품

탄약고 안 미끄럼틀과 그네, 막사 문을 열고 들어가 만난 북한군 소년병. 어느 정도는 예상한 ‘반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느낌은 또 달라졌다.

1953년부터 2004년까지 반세기 이상 미군이 주둔해온 경기 파주 ‘캠프 그리브스’가 문화예술공간으로 변신했다. 안보관광·군부대 체험이란 식상한 용도로 쓰이던 곳에 예술이 더해졌다. 캠프 그리브스는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에서 고작 2km 떨어진 민간인통제구역 안에 있다. 2004년 미군 철수 뒤 한동안 방치돼 있다가 2007년부터 경기도가 안보체험시설 등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2016년 방영된 <태양의 후예>가 큰 인기를 끌면서 캠프 그리브스를 찾는 관광객은 연간 2만명을 넘는다.

그동안은 흔한 관광지였지만 여기에서 ‘DMZ 평화정거장 사업’을 시작하면서 문화예술공간이란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예술 창작전시는 평화정거장 사업 중에서도 핵심이다. 지난 8일 기자단 공개행사에서 만난 이은경 DMZ 평화정거장 예술총감독은 “캠프 그리브스가 품은 역사성을 살리면서 (그 상흔) 문화예술로 중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올해 예술창작전시에는 김명범, 박찬경, 정문경, 정보경 등 초청작가 4인과 강현아, 박성준, 시리얼타임즈(강민준, 김민경, 송천주), 인세인박, 장영원, 장용선 등 공모선정작가 6팀이 참여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김명범의 ‘플레이그라운드’ 연작이다. 전쟁무기를 보관하던 탄약고 한 곳에는 미끄럼틀과 그네를, 다른 한 곳에는 박제된 큰 사슴을 설치했다. 작가는 “한국에는 이렇게 큰 사슴이 살지 않아 미국의 흰코리사슴으로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탄약고에 박제된 큰 사슴을 설치한 김명범의 ‘플레이그라운드 제로’(사슴).

경기관광공사 제공



미군 막사 안에서 북한 소년병이 노래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박찬경의 ‘소년병’(왼쪽 사진)과 지뢰찾기 게임을 작품으로 옮겨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시리얼타임즈의 ‘117kb’.



경기관광공사 제공

은 미국에서 왔다. 작가는 “한국에는 이렇게 큰 사슴이 살지 않아 미국의 흰코리사슴으로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박찬경의 영상 ‘소년병’은 지난 해 국립 현대미술관 고천에서 열린 ‘역사를 몸으로 쓰다’ 전에 이미 선보인 작품이다. 그러나 고천의 미술관에서 전방의 미군기지로 전시장소가 달라지면서, 작품의 무게 역시 변했다. 미군 막사 안에서 북한 소년병이 노래하고 기타치는 영상을 보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다. 이전에는 12분짜리 였던 것을 16분 분량으로 재편집했다.

관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게임 같은 작품’도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진짜 게임이다. 시리얼타임즈가 만든 ‘117kb’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유명한 게임 ‘지뢰 찾기’를 관객이 마우스가 되어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뢰를 건드리면 실제 지뢰 폭발 이후 생긴다는 소리가 막사를 가

득채운다. 이은경 감독은 “게임의 가벼운 속성과 전쟁의 무거운 주제 아래서 관람객은 행위의 주체가 되어 작품에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작품 제목 ‘117kb’는 1990년대 나온 지뢰찾기 초기 버전의 파일 용량이다.

박성준의 ‘YOUR FLAME II’ 역시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이다. 포연과 괴성이 가득한 공간에서 관객은 이라크전의 실제 충격 영상을 스크린으로 보게 된다. 스크린 속 군인들은 충격을 받아 말 그대로 게임처럼 쓰러지고 소멸된다. 방심 하던 관객은 이곳이 50여년 전에는 전쟁터였음을 그때서야 실감한다.

캠프 그리브스 철조망 주변 산책로에는 처음 보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불안함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는 ‘신경쇠부엉이’, 지뢰가 인근에 있으면 잎 끝이 빨갛게 변하는 ‘지뢰탐지 고비식물’, 등허리에

북방한계선, 군사분계선, 남방한계선처럼 줄무늬가 있는 ‘등털라이산양’ 등 14종이나 된다. 물론 모두 가상의 동식물이다. 강현아 작가가 구성한 ‘기이한 DMZ 생태 누리공원’이란 작품이다.

탄약고에 설치된 놀이터와 사슴, 막사에 있는 북한군 소년병 영상은 내년 7월 31일까지 볼 수 있다. 기이한 DMZ 생태 누리공원, 117kb 등이 포함된 ‘평화의 정원’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비고와 스튜디오 BEQ에서는 오픈스튜디오, 아티스트 워크숍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개인 차편을 이용한 관람은 번거롭지만 주말 임진각까지 오면 하루 3번 왕복하는 셔틀을 타고 예약 없이 들어갈 수 있다. 물론 신분증은 필요하다. 신분증을 보여주고 군 검문소를 통과하는 것부터가 이 색다른 전시의 시작이다.

홍진수 기자 sooh43@kyunghyang.com

철원, 北근로자 출퇴근 산업단지…파주는 국제평화단지 추진

경기·강원도의 개발 청사진

경제특구 관련 법안 6건 발의

통일부 “곧 정부안 마련할 것”

경기도와 강원도는 남북 협력사업을 최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남북 평화의 메신 저가 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 사업 이다. 후보지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경기도 에 비해 강원도는 철원을 유력 후보지로 밀면서 한발 앞서간 모습이다.

강원도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위한 동 해북부선(강릉~고성·제진) 철도 개설, 동

도로, 속초~원산크루즈, 양양공항~갈마 공항 4개 축 연결과 철원평화산업단지 조 성, 평화특별자치도 지정을 추진하고 있 다. 특히 철원평화산업단지가 주목을 끈

다. 철원 모델은 남쪽에 산업단지를 만들 고 북한 근로자들이 출퇴근하는 개념이 다. 남쪽의 개성공단인 셈이다. 산업단지 예정 용지는 대미리와 중세리 일원으로 휴 전선과 인접해 있고 북측 철원과도 맞닿은 곳이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 남북 관계 가 악화되고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장 기 표류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다시 각광받 고 있다. 강원도는 다음달 중에 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역시 통일경제특구 지정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개발, 남북 공동수계관리·교류협력, 경원선 대 륙 물류 지역 개발·남북 연결 도로망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 후보지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른바 ‘자유로 라인’에 있는 도시들이 치열한 유치전 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는 통일경제특구법을 제정해 ‘평 화경제특별시’로 거듭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연천군은 개성공단과 20km 떨어진 연천평야에 제2개성공단을 건설하는 통 일경제특구를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는 남북평화협력 타스크포스팀(TFT)을 신 설하며 파주 민통선 일대에 통일경제특구

파주시의 통일경제특구는 ‘동북아·유 라시아 상생경제의 축’을 개념으로 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국제평화공업단지를 만들겠다 는 얘기다. 아직 개발의 구체적 방향은 나 와 있지 않지만 입지가 확정되면 급물살 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지역 국회의원들은 관련 법안 6건을 발의하며 통일경제특구 지정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박정 의원(경기 파주)은 남북 경제협력 거점을 경기도 북부나 강원도 북 부 전역 등으로 광역화하는 것보다 파주로 범위를 축소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주를 특별자치시로 만들 고 이 지역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중립 지대로 규정하자고 주장했다. 이곳에 입주

국회에 제출된 통일경제특구 관련 법안

- ▶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법률안
- 경기 10개 시·군(고양·의정부·남양주·파주·구리·포천·양주·동두천·기평·연천) 평화통일특별도 신설
- ▶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법률안
- 북한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별 구역 지정
- ▶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특별법안
- 강원도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법률안
- 남한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
- ▶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법률안
- 북한 인접 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 설치
- ▶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조성 특별법안
-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 설치

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자금 지원 을 해주는 동시에 북한 주민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자는 것이다. 통일부는 이들 법률안 6건을 참고해 정부안을 마련 하고 있다. **파주/지총구·철원/이상현 기자**

경인일보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001면 종합



해안가에 늘어선 철책 국방부가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경기·인천 지역을 포함한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화성시 궁평항 유원지 앞 철책(왼쪽)과 인천시 남동산업단지 해안도로에 설치된 철책.

/임열수·김용국기자 pplys@kyeongin.com

국방부 국비로 철책170km 철거

김포이어 평택~화성구간 포함

전국 56% 2020년까지 단계적 제거

지자체 협의 거쳐 10월 대상 확정

민통선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도

서해안을 따라 평택~화성지역에 설치되었던 군 경계철책 중 상당 부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된다.

남북관계 개선에 힘입어 한강 하구 고양구간 철책선 일부를 제거키로 한데 이어(7월26일자 9면 보도) 바닷가를 가로막던 철책도 전국적으로 절반이상 걷어내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16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전국 해·강안 철책 300km 중 56.7%에 이르는 170km가량을 올해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걷어낼 수 있는 대상을 분류했는데, 이 중 3군 사령부 관할인 서해안 일대 화성·평택지역 철책이 강원도 동해안 지역과 더불어 주로 포함됐다. 평택~화성지역 철책은 70km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철책 제거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방부는 이날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철책을

제거할 때는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대부분 부담해왔는데, 이를 개선해 국비를 투입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각 지자체와의 협의와 내부 심의를 통해 오는 10월 철거 대상을 최종 확정한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철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철책이 제거되더라도 대부분 구간에는 열상감시장비·CCTV 등 감시장비를 둘 예정이다.

앞서 일부 구간의 철책을 제거키로 합의했던 한강 하구 등지도 추가로 철책이 제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고양시는 지난달 말 김포대교~일산대교 한강 하구 고양구간 철책(8.4km)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제거키로 군과 합의한 바 있다. 경기도 측은 "서해안 일대 철책과 고양·김포 등 한강 하구 철책 중 어느 정도가 철거 대상이 될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지역' 외의 구역은 아예 해제하거나 규제를 완화해 통제 절차를 이전보다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심 친화형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 말 수도권에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중부일보

2018년 8월 17일 금요일 002면 종합

불필요한 해안 경계철책 170km 걷어낸다

<전체 약 300km 중>

**화성~평택·강원 주로 철거될 듯
민통선 보호구역 완화·해제도**

화성~평택 지역 경계철책이 철거되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된다. 국방부는 16일 전국 해안과 강에 설치된 경계철책 300km 중 절반 이상이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철거된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에 대해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비를 투입해 경계철책을 철거 또는 대체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

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철거 가능 경계철책은 현재 300km 중 57%인 170km다. 군은 자체적으로 철거 가능한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감시 장비 없이 철거하는 구간이 34.7km이고, 감시 장비를 보완해 철거하는 구간이 134.9km다.

경계철책이 철거되는 지역은 전수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겹증까지 끝난 상태이나 지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올해 10월께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3군(경기도)의 화성~평택 지역과 1군(강원)의 동해안지역 경

계철책이 주로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민통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 지역을 식별, 겹증한 뒤 올해 말 '군사시설보호심의 위'를 통해 보호구역 완화 및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도 확대키로 했다.

국방부는 "군이 적법한 보상 없이 불가피하게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측량을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점유 사실을 알리고, 무단점유지에 대한 보상 및 매입, 반환, 임차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득기자